

아 침 비 속 에 서 너 를 만 나 다

J O U J O U
朝 雨 遭 遇

KOSOMI

[SUPPLEMENT 흔적의 흔적]
2021.02.18 - 2021.03.31

CARIN

1. 전시개요

전시제목 | SUPPLEMENT : 흔적의 흔적

참여작가 | 고소미

전시기간 | 2021.2.18 (목) ~ 2021.3.31 (수)

전시장소 | 카린 (구. 갤러리 메르씨엘비스)

관람시간 | 11:00AM ~ 06:00PM, 일 - 월 휴무

문의전화 | 051.747.9305



JOU JOU (朝雨 遭遇) (아침 비 속에서 너를 만나다)

재료: 철사, 한지, 은사

기법: 스피닝, 코일링, 한지캐스팅,

작가노트:

현관문을 여니 복도 담 너머로 비가 비가 내리고.

아파트 1층에서 우산을 펴 드는 순간

아... 또 바람이었구나!

오늘은 정말 속지 말아야지 우산을 내려두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차가운 빗방울이 똑똑 나를 부르고 아침 비 속에서 너를 만났지.

너를 만난 기적 만으로도 난 외롭지 않아.

고소미의 작품은 언제나 하나의 풍경 속으로 이끈다. 그 풍경은 마치 피할 곳 없는 꿈속처럼 나를 끌어들인다. 그 곳은 하나의 세계다. 문이 닫혀버린 세계. 아니 내가 닫아버린 내 심연(深淵)의 세계이다. 외면하고 싶은 기억,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답이 없는 질문들을 접어 나도 찾을 수 없게 밀어 넣어두었던 바로 그 곳이다. 그 곳에는 흑백의 꿈처럼 기억의 형상들이 떠 있다.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의 형상들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길을 찾아 헤매인다. 기억의 형상들이 내 곁을 스친다. 내가 기억의 형상을 스친다. 따갑다. 쓰라린다. 내려다보니 어느새 피가 맺혀있다. 길은 없는 듯하다. 헤매이다 지쳐 멍하니 내 기억의 방울을 쳐다본다. 날선 시린 기억들... 눈물이 차오른다. 피가 흐른다. 날카롭던 기억들은 어느새 내 피와 눈물에 젖어 일그러지고 퇴색된다.

눈물 넘어 멀리 바깥의 내가 보인다.

문 너머의 나는 여전히 기억의 형상을 빚고 있다.

고소미가 이끄는 곳은 무의식의 세계와 같다. 무의식의 세계는 이를 수 없는 욕망의 공간이자, 이루지 못해 상처 받은 기억의 공간이다. 이 공간의 기억들은 잊어버리기보다는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리라. 그러나 이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잊혀질 뿐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기억과 함께 나를 형성한다. 순간적 말실수, 흘러가는 농담 속에서 상처받은 나의 감정들은 당시의 기억과 엉켜 예민한 촉수를 드러낸다. 허공에 떠 있는 워터 크라운(Water Crown)은 이런 기억의 형상들이다. 우리의 의식은 별일이 아니라고 그 돌기들을 도닥이며 감싸 접어두었지만, 예민한 기억의 촉수들은 상처받았던 그 때와 유사한 상황에 닿칠 때 마다 다시 일어나 요동친다. 고소미가 워터 크라운을 실로 칭칭 감싸고, 돌기를 한지로 덧입혀보지만 그 돌기들을 감출 수 없듯이...

이 불편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려 하지만, 예전에 상처 받았던 정황들은 이미 잊혀져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감정들은 남아서 오늘의 기억과 다시 엉키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한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 기억들은 왜곡되어가고 그 기억의 돌기들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날카로워진 무의식은 때때로 의식의 검열을 뚫고 나와, 나도 모르게 나를 베고 다른 이들을 찌른다. 나의 의식은 더 이상 무의식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다. 이때 고소미는 살며시 거울을 내민다. 더 이상 불편한 기억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며... 그러면 언젠가 삭아서 무뎌지고 사라질 워터 크라운의 돌기들처럼 내 감정의 촉수들도 사그라들 것이라며...

고소미는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끝끝내 마주하게 한다. 감당하기 버거워 저 아래 무의식의 세계에 겨우 감추어 두었던 것을 꺼내 놓고서는 위로하지도 않는다.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쓰라리면 쓰라린대로 오롯이 그 기억의 감정을 느끼라 한다. 잔인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힘겹게, 그 기억의 감정들과 마주하다 보면 나에 대한 애잔함이 차오른다. 여린 내가 보인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온전히 나를 이해하며, 내 주변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정화(淨化)작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은지 모르는 나의 상처는 또 그렇게 언제 어떻게 아물었는지 모르게 사라져 갈 것이다.

강은아 미술평론가

고소미 Kosomi

학력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오오츠카텍스타일 전문학교 연구원
 타마미술대학 텍스타일디자인과 연구원
 무사사노미술대학교 대학원 졸업
 무사시노 미술대학대학원 박사후기과정 조형예술연구과 수료

개인전

2002 '休' 금정문화회관
 2005 '숲속의 바람' OZONE 신인작가 서포트전
 2005 동경 신주쿠 리빙디자인센터 OZONE 리빙디자인 갤러리
 2013 '여기, 바람이' 메르씨엘 비스
 2017 '入染 - 색에 빠지다' 메르씨엘 비스
 2019 '間(사이)' 메르씨엘 비스

그룹전 및 기획전

2004년 Today's Art Textile Summer (동경 긴자 센비키야)
 2004년 고까야마 와시축제 (토야마켄 와시 마을 와시공예관)
 2005년 Today's Art Textile in Busan miniature exhibition 2005 (한국 부산)
 2006년 무사시노미술대학 졸업제작전 (동경 룩봉기 AXIS)
 2006년 Today's Art Textile in Busan miniature exhibition 2006 (한국 부산)
 2006년 무사시노 미술대학 졸업제작 우수작 작품전 (무사시노 미술대학 도서관)
 2006년 Today's Art Textile in Busan miniature exhibition 2006 (한국 부산)
 2007년 Today's Art Textile in Busan miniature exhibition 2007 (한국 부산)
 2008년 Today's ART TEXTILE 그룹전 (이와테켄 모리오카시 사이언스갤러리)
 2011년 30人+ 컵받침
 2013년 컵받침 展

수상내역

1997년 부산미술대전 입선

1998년 부산미술대전 입선

2009년 도요타 신인작가 서포트 공모전대상

2004년 무사시노미술대학 국제교류과 EPSON사 공동주최 디자인 공모전 입선

2005년 The Arc of Philadelphia 8th Annual Art & Crafts Competition & Exhibition excellence award

2005년 무사시노미술대학 국제교류과 EPSON사 공동주최 디자인 공모전 준그랑프리

2006년 무사시노미술대학 졸업작품 우수상

그외활동

영화(상의원)의상 제작, 드라마(미스터 선샤인) 의상 제작

소미당 런칭